

카카오페이, 하루만에 시총 3兆 증발... 성장성 입증 '명운'

16만9000원 장마감... 시총 22조 전 거래일 대비 2만4000원 하락 코스피200 지수 조기 편입 관심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카카오페이 유가증권시장 신규상장 기념식 /뉴시스

카카오그룹의 금융계열사인 카카오페이가 코스피 시장에 데뷔했다. 단숨에 시가총액 22조원을 돌파하며, 금융주 시총 3위에 등극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이슈와 고평가 논란 등의 이유로 기업공개(IPO) 삼수 끝에 맺은 성과다. 단, 고평가 논란이 여전히 장기 성장성으로 밸류에이션을 입증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았다.

카카오페이는 간편결제, 송금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테크핀 기업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누적 가입자 수만 3650만명에 달하며,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000만명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1163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1704억원) 대비 27% 증가했다. 카카오페이는 공모자금을 통해 간편결제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성장과 디지털 손해보험사, 카카오페이증권, 대출 중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다.

◆카카오페이, 금융주 3위 등극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전 거래일 대비 2만4000원(12.44%) 하락한 16만9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카카오페이의 하락세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영향을 미쳤다. 3~4일 2거래일간 외국인 투자자는 카카오페이 1980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주가 하락으로 인해 카카오페이의 시총은 22조320억원으로 하루 만에 3조원 넘게 증발했다. 코스피 시총 순위(삼성전자우 제외)도 기존 13위에서 18위로 5계단 내려갔다. 카카오뱅크(28조5060

억원), KB금융(23조2852억원)에 이은 금융주 3위 자리를 차지했다.

지난 3일 카카오페이는 18만원에 시초가를 형성하며, 1만3000원(7.22%) 상승한 19만3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공모가(9만원) 대비 114% 급증한 것. 장 초반 시초가 대비 27.78% 오른 23만원까지 기록하며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상한가)'에 근접하기도 했다.

당초 카카오페이의 상장 후 유통 가능성 물량은 38.91%로 오버행(잠재적 매도물량) 이슈가 불거졌다. 그러나 카카

오페이의 2대 주주이자 전략적 투자자인 알리페이가 보유 물량을 매도할 가능성이 낮아 실질적 유통 가능 물량은 더 적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장기주 카카오페이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주주의사에 대해서 100% 확신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알리페이는 전략적 투자자로서 많은 비즈니스 차원에서 협업을 하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맺은 상태"라며 "법적 기준에 맞춰 보호예수를 걸어놨을 뿐 단기간 내 지분을 매각할 의사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장 이후 성장 가능성 보여줘야... 코스피200 지수 편입 주목"

증권업계는 카카오페이의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금융당국의 규제 걸림돌을 일단 해결했으며, 상장 이후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카카오페이는 올해 하반기 MTS 출시와 디지털 손해보험사 분인가 신청을 준비 중이다. 또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본허가를 받아 5개월간 임시 중단됐던 자산관리 서비스도 다시 가능해진 상태다.

단, 카카오페이에 대한 주가 전망은 증권사별로 편차가 컸다. 이베스트투자증권 12만2730원, 메리츠증권 11만원, KTB투자증권 5만7000원 등이다.

또 지난 8월 상장한 카카오뱅크의 주가 흐름을 고려했을 때 주가가 큰 변동성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카카오뱅크는 9만4400원까지 치솟았다가 시장 규제 이슈와 고평가 논란에 4일 종가 기준 6만원을 기록했다. 고점 대비 36.4% 하락했다.

한편 카카오페이의 코스피200 지수 조기 편입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코스피200 지수에 조기 편입될 경우 패시브 자금이 유입돼 주가 하방을 지지하는 요인이 된다.

이우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존 주주(알리페이) 물량이 다수 출회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카카오페이 역시 기존 사례들과 같이 무난히 지수 편입이 될 것"이라며 "11월 23일까지 일평균 시가총액 50위 이하로 하락하지 않으면 특례편입 기준이 충족되며, 11월 말 지수 편입 여부가 공시될 것이고 지수 선물 만기일인 12월 9일에 지수 편입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삼성물산-포스코, 그린수소사업 공동 추진

2050년 500만톤 수소생산체제 구축 수소 저장·운송 기술 확보 등 협력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포스코와 그린수소 사업 관련 포괄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미래 성장의 한 축으로 그린수소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포스코 역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오는 2050년까지 500만톤의 수소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그린철강 기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함에 따라 양사가 그린수소 사업 협력을 위해 서로 손을 맞잡았다.

삼성물산과 포스코는 이번 협약을 통해 수소 생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 그린수소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양사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삼성물산은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프

로젝트 수행 경험 등을 비롯해, 전략적으로 그린수소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중동지역에서의 폭넓은 사업 경험과 역량, 고객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사업 개발에 적극 나선다. 여기에 세계적인 에너지 저장시설 전문 설계업체인 자회사 영국 웨소를 통해 액화수소용 저장탱크 기술 개발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포스코는 지난해 '수소경제를 견인하는 그린수소 선도기업'이라는 비전을 공표하고, 수소의 생산 단계부터 운송, 저장,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분야에서 사업권과 기술력을 발 빠르게 선점하고 있다.

특히 고유의 철강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로 독자 개발한 극저온용 고망간(Mn)강 LNG 저장탱크 소재 기술을 기반으로 수소의 운송과 저장에 필요한 소재 개발에 나선다. 이를 통해 삼

성물산이 개발하는 액화수소용 저장탱크에 포스코의 고망간강과 고강도 스테인리스강을 적용해 경제성 있는 수소 저장 및 운송 기술을 확보하는데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은 "글로벌 수소 사업 플레이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수소 생산부터 저장, 공급에 이르기까지 그린수소사업 전 밸류체인에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스코 유병욱 산업가스·수소사업부장은 "탈탄소화의 핵심인 그린수소 사업을 위해서는 국내외에서 생산 환경이 유리한 지역을 빠르게 선점하고, 액화수소 저장과 유통 부분의 경쟁력 높은 소재와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라며, "역량 있는 파트너 간 협업을 통해 미래 시장의 불확실성을 함께 제거해 나가는 전략과 노력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안전진단 규제에도 호가는 고공행진 목동신시가지, 수개월 사이 4억 '쑈쑈'

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상승세 지속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단지들이 정부의 안전진단 규제에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단지 중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통과한 곳은 목동6단지 유일하다. 목동9단지는 지난해, 목동11단지는 올해 각각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한 바 있다.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한 다른 단지들도 적정성 검토 일정에 속도조절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단지별 재건축 현황을 살펴보면 5, 7, 13단지는 2차 안전진단 진행 중이며 2, 3, 4, 10단지는 2차 안전진단 접수를 한 상태다. 1, 8, 12, 14단지는 1차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1차 판정에서 A~C등급일 경우 유지·보수, D등급 조건부 재건축, E등급 재건축 확정 판정이 결정되고, D등급 조건부 재건축의 경우 2차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최종 재건축 가부가 결정되는데,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탈락되면 1차 진단 재도전 시 다시 비용이 드는 문제가 발생해 주민들 부담이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김수영 양천구청장과 오승록 노원구청장,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지난달 13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재건축 등 주택정책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재건축 추진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제안한 바 있다.

주민 A씨는 "최근 일부 동 수도관에 녹물이 나와 필터링 샤워기를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 다른 주민 B



2차 안전진단이 진행 중인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7단지 전경. /정연우 기자

씨는 "재건축까지 앞으로 10년은 더 거릴 것이라는 게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이다"라고 전했다.

노후화된 주거환경에도 구조안정성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3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했다. '구조안정성'은 기존 20%에서 50%로 평가 비중을 높인 반면, '주거환경'은 기존 40%에서 15%로 낮췄다.

재건축 속도가 더딘 와중에도 목동아파트 호가는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오히려 평균 4억원이 올랐다. 단지 별로 살펴보면 목동 4단지 전용면적 96㎡는 현재 24억원에 매물이 있다. 이 면적형은 올해 4월 20억원에 팔린 바 있다. 호가만 4억원 가량 오른 셈이다. 지난 4월 20억8000만원에 거래된 5단지 전용 95㎡도 현재 25억원에 매물이 나왔다.

목동7단지 전용 66㎡는 20억원에 매물이 나왔다. 이 면적형은 지난 4월 17억7000만원에 팔린 바 있다. 수개월 사이 호가만 2억원이 넘게 오른 셈이다.

/정연우 기자

'나무 프리미엄' 가입자 2만5000명 돌파

NH투자증권 MZ세대 비중 60% 차지

NH투자증권은 나무(NAMUH) 프리미엄 가입자가 출시 3일만에 2만5000명을 넘어섰다고 4일 밝혔다.

나무프리미엄 가입자는 지난 3일 기준 2만5289명으로 지난 1일 출시 이후 3일만에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 타겟으로 출시된 만큼 MZ세대가 60%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나무프리미엄은 MZ세대의 올바른

투자 습관 형성과 투자성공 경험을 위해 출시됐다. 나무투데이, 나무레벨업, 나무픽(PICK) 3가지 메뉴와 MY 멤버십으로 구성돼 있다.

나무투데이에서는 국내외 증시브리핑과 순살, 부딩, 머니네이버클럽, 돈키케터 등 금융 관련 뉴스레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무PICK에서는 국내외 종목 발굴을 지원한다. 해외기업분석팀과 국내투자전략부가 성과를 낼 만한 섹터와 종목을 제시한다.



또한 인공지능(AI)이 종목을 분석하거나 미국 배당주에 대한 포트폴리오 정보를 제공한다.

NH투자증권은 나무프리미엄 출시를 통해 대고객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